안녕하세요 김동이입니다. ^^

오늘 서울시 조림학 시험 어떻게들 보셨나요?
오늘 조림학 난도는 '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군집의 속성과 산불관련문제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도시환경림문제는 낯설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4지선다로 바뀌면서 조림학의 난도를 작년보다 많이 올렸으며, 역시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80점 정도 맞으셨으면 상당히 잘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 많으셨구요,
아직 지방직 시험이 남아있으니 마무리 잘 하셔서 지방직 시험에서 실력발휘를 최대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분들 건강 유의하세요~항상 마스크쓰고 다니시고 손 자주 씻으시구요!)

임업직 수험생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

2015 서울시 9급 조림학 (A형)

1. 수목의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수목의 여러 부위 중에서 잎의 호흡활동이 가장 왕성하다.
② 뿌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지 않지만 산소호흡을 한다.
③ 과실의 호흡은 결실 직후에 가장 높다.
④ 종자의 호흡은 성숙하면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 이론수업시 나누어드린 보충프린트에 있습니다.
· 수목의 여러 부위 중에서 잎의 호흡활동이 가장 왕성하다. 잎의 호흡량은 잎이 완전히 만들어진 직후 가장 왕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퇴하여 가을에 생장을 정지하거나 낙엽 직전에는 최소로 줄어든다.
· 뿌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있지 않지만 산소호흡을 한다.
· 과실의 호흡은 결실 직후에 가장 높으며, 그 후 과실이 자람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어 과실이 익으면서 최소치를 나타내다가 완전히 성숙하기 직전에 다시 호흡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 종자의 호흡은 종자가 자라고 있는 기간에는 높지만, 일단 성숙하면 감소한다.

2. 파종상의 높이를 고랑높이보다 약간 낮게 하는 저상에 파종하기 적합한 수종은? 4
① 소나무류, 낙엽송
② 참나무류, 밤나무
③ 오리나무, 자작나무
④ 버드나무류, 사시나무류
-> 탑스팟 P.262

파종상 명칭	상만들기 요령	대상수종
소나무상 (고상)	10cm높이의 상을 만들면서 상의 표토를 1cm이하 눈을 가진 체로 쳐서 균일하게 덮은 후 나무 판으로 평탄하게 다진다.	소나무류·낙엽송·삼나무· 편백·가문비나무·전나무
상수리나무상 (고상)	소나무처럼 상을 만들지만 상면은 레이크 등으로 쇄토하면서 평탄하게 한다. 흙체로 치지 않고 다소 거칠게 조성해도 무방하다.	참나무류·밤나무· 칠엽수·은행나무
오리나무상 (평상)	상 높이를 고랑높이와 같게 하지만 나머지 작업은 소나무상에 준한다.	오리나무·자작나무
호두나무상 (평상)	상 높이를 고랑높이와 같게 하며 나머지 작업은 상수리나무상에 준한다.	호두나무·물푸레나무
버드나무상 (저상)	상 높이를 고랑높이보다 7~10cm 낮게 하며 나머지 작업은 소나무상에 준한다.	버드나무류·사시나무류

3. 묘목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묘포장의 준비과정은 쇄토 - 밭갈이 - 작상의 순으로 한다.
② 일시휴한지는 묘포면적 중 부속지에 해당한다.
③ 소나무와 전나무의 솎기횟수는 1~2회에 나누어 실시한다.
④ 입고병의 병원균으로는 Rhizobium과 Fusarium균이 있다.
->
① 파종하기 전 종자의 정착과 발아 및 유묘의 발육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정지작업을 한다. 이 작업은 밭갈이(경토), 쇄토(흙덩이 부수기), 작상(묘상 만들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탑스팟 P.261)
③ 가을에 남길 묘목의 수를 예상하여 보통 3회 정도 나누어 솎아내기 작업을 끝낸다. 성장주기가 두 번 있는 낙엽송, 삼나무, 편백 등은 2~3회, 성장주기가 1회인 소나무류, 전나무류, 가문비나무류는 1~2회에 나누어 실시한다. (탑스팟 P.268)
④ 묘포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병은 모잘록병이며 소나무류, 낙엽송, 가문비나무류, 전나무류 등 바늘잎나무에 피해가 크다. 이들의 병원균은 리조토리아(Rhizoctoria), 푸사륨(Fusarium), 피지움(Physium) 등이다. 이들 균에 의해 침해를 받으면 땅 속에 있는 종자가 썩기도 하고 지표면 부근의 줄기 부분이 썩어서 어린 싹이 쓰러진다.) (탑스팟 P.272)
모잘록병이 입고병입니다. Rhizobium은 질소고정미생물이라는 것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일시휴한지는 육묘지에 속합니다.

4. 수종별 종자저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등 소립종자를 가진 침엽수종은 종자를 건조상태로 저장해야 한다.
② 참나무류, 가래나무는 습도가 높은 조건하에 두어 저장해야 한다.
③ 보호저장법은 함수량이 많은 전분종자를 동결하지 않고 저장하는 보습저장법의 일종이다.
④ 백합나무, 은행나무는 파종하기 한 달쯤 전에 노천매장해야 발아가 촉진된다.
-> 탑스팟 P.215
종자 정선 후 즉시 노천매장하는 수종 : 들메나무, 단풍나무, 벚나무류, 잣나무, 섬잣나무, 백송, 호두나무, 느티나무, 백합나무, 은행나무, 목련, 주목, 향나무, 목련, 대추나무

5. 덩굴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덩굴치기의 시기는 7월경이 좋다.
② 조림지에 덩굴식물과 잡초 등을 제거하는 것을 산벌작업이라 한다.
③ 덩굴식물은 울폐한 조림지에 자주 발생하므로 목재생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④ 덩굴식물의 고사를 위한 약제 처리는 줄기가 자란 이후에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
이론수업 들으신 분들은 탑스팟 P.321 덩굴치는 시기는 덩굴이 무성하기 전 5~6월쯤이 좋으며 너무 늦으면 덩굴 제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나무가 해를 입는다. 옆에 뿌리 속 저장양분을 소모한 7월경도 필기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덩굴식물이 양성이라 울폐한 천연림이나 조림지에는 적으나 벌채하면 수년 내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내용도 필기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산벌은 나무를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몇 차례로 나누어 베어내어 마지막에는 모든 나무를 벌채함과 동시에 그 곳에 새로운 숲이 나타나게 하는 작업이며, 내음성이 강한 수종에 적합한 방법이다. (탑스팟 P.370)
K-pin 사용시 주의할 점 :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으나 눈이 트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작업하기 쉽고 제초제의 소모도 적다. (탑스팟 P.322)

6. 무기양료의 요구량이 높은 수종으로 묶인 것은? 1
①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② 느릅나무, 자작나무
③ 밤나무, 소나무
④ 전나무, 서어나무
->
오동나무는 척박지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 (탑스팟 P.434)
이론수업시 나누어드린 프린트에 아래의 표가 있습니다.

무기영양소 요구도	활엽수	침엽수
상	피나무, 흑호도, 물푸레나무, 사탕단풍, 튤립나무, 아까시나무, 알바참나무	독일가문비, 낙우송, 테나소나무, 서양측백나무
중	자작나무, 포플러, 루브라참나무	잣나무, 미송, 젓나무, 솔송나무, 가문비나무
하		대왕송, 슬래쉬소나무, 방크스소나무, 미국적송, 폰데로사소나무, 버지니아향나무

7. 조경수목과 귀중수목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큰나무이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상록침엽수종은 3~4월 상순에 뿌리돌림을 실시한다.
② 상록활엽수종은 5~6월(장마철)에 뿌리돌림을 실시한다.
③ 근분뜨기는 근원직경의 2배 정도가 되는 근분직경 주위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폭 50cm 정도로 도랑을 판다.
④ 발근하기 어려운 수종, 노쇠목, 귀중목 등은 부정근 발생 촉진을 위해 지지근을 박피한다.
-> 탑스팟 P.316
근분뜨기: 근원직경의 3~5배가 되는 근분직경 주위를 50㎝폭으로 파서 주근(主根)을 박피한다. 근분의 깊이는 근원직경의 2~4배정도로 하며, 토질상 근분이 깨어지기 쉬운 때에는 사전에 관수해서 흙에 습기를 준다.

8. 솎아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미숙한 임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솎아베기에 있어서는 수관의 상대적 위치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정성간벌은 간벌목 선정자의 주관에 의해 대상목이 선정된다.
④ 솎아베기 후 잔존목의 생장을 위해서는 겨울철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
① 넓은 뜻의 간벌 개념 (또는 일반적인 개념): 간벌은 유령림 단계의 미성숙 임분에서 처음 임분을 소개시켜줄 때부터 주벌수확 이전 갱신을 유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임분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의 상호관계적 상태에 대한 무육벌채적 조정을 뜻한다.
간벌은 미숙한 임분의 일부 임목을 벌채해서 남게 되는 나무에게 더 넓은 생육 공간을 주어서 지름 생장을 촉진하고 유용한 목재의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며, 숲은 건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탑스팟 P.323)
②번 보기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설명 패스하겠습니다.

③ 단원별문풀에서 기출문제를 풀 때 설명드렸습니다. 정성간벌시 간벌목은 선정자의 주관에 따라 그 대상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이 요구됩니다.
④ 솎아베기는 주로 수액의 이동이 정지된 기간에 실시하지만, 잔존목의 생장을 위해서는 봄이 가장 좋습니다. 이론 수업 들으신 분은 필기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9. 우리나라의 생태권역 중 생태적인 다양성과 생산성은 매우 높으나 과거로부터 인간의 간섭을 받아 생태계가 많이 훼손된 권역으로 옳은 것은? 3
① 산악권역
② 중부산야권역
③ 해안 . 도서권역
④ 남동산야권역
-> 탑스팟 P.173
해안·도서권역 : 바다의 영향으로 상록활엽수와 해송도 자라고 있다. 생태적인 다양성과 생산성은 매우 높지만, 과거부터 인간의 간섭을 받아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었다. 서부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으로 개펄 등 주요 습지가 많으나, 간척사업과 주변국들의 공업화로 오염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부해안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있어 어느 정도 보전되고 있지만 몇 군대의 공업시설 때문에 오염도 꽤 진행되고 있다. 동부해안은 규모도 서해보다 크고 난류의 영향을 받아 연평균 기온이 서부해안보다 높고 연교차도 적다. 상록활엽수림은 서부해안보다 적은데, 이것은 봄철 건조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봄철 건조기에는 푄현상 때문에 매우 건조하여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10. 도시환경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최소한 25m 이상의 폭을 가진 수림대가 있어야 소음이 감소되기 시작한다.
② 침엽수가 활엽수에 비해 공해에 내성이 강한 것이 일반적이며, 은행나무의 내성이 강하다.
③ 환경보전림은 오염된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 안에 조성되는 숲이다.
④ 분진방지림의 가장자리는 밀도를 낮게 식재하여 임내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활엽수가 침엽수보다는 공해에 내성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은행나무·단풍나무·참나무류 등이 공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 묘목의 연령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실생묘 표기법에서 1-0묘(苗)는 판갈이상에서 1년이 지난 1년생 묘목이다.
② 실생묘 표기법에서 2-1-1묘(苗)는 파종상에서 1년, 판갈이를 한 지 1년이 지난 2년생 묘목이다.
③ 삽목묘 표기법에서 0/1묘(苗)는 삽수를 꽂아 뿌리가 1년, 줄기는 제거한 묘목이다.
④ 삽목묘 표기법에서 1/2묘(苗)는 삽수를 꽂아 뿌리가 2년, 줄기는 1년된 근주묘이다.
-> 탑스팟 P.291, 292
① 1-0묘: 앞의 1은 파종상에서 지낸 횟수, 뒤의 숫자 0은 판갈이상에서 지낸 횟수
(판갈이를 하지 않고 1년이 경과된 종자에서 나온 묘목)
② 2-1-1묘: 파종상에서 2년, 판갈이 후 1년, 한 번 더 판갈이 하여 1년 지난 만 4년생 묘목
④ 1/2묘: 뿌리의 나이 2년, 줄기의 나이 1년 된 삽목묘
(줄기의 나이가 뿌리의 나이보다 적은 묘는 대절묘)

12. 중림작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하목의 벌기는 대체로 10~20년이고 상목의 벌기는 하목의 2~4배로 한다.
② 벌채로 잔존임목에 주는 피해가 크다.
③ 세밀한 조림기술을 쓰지 않으면 상목은 지하고가 낮고 수형이 불량해진다.
④ 소면적의 임지에서도 연료재 및 소량의 일반용재가 얻어질 수 있다.
-> 탑스팟 P. 382, 383
하목의 벌기는 대체로 10~20년이며, 상목의 벌기는 하목의 2~4배이다.
* 중림작업법의 장점
· 임지에 큰 공지(空地)를 만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임지의 노출이 방지되어 임지를 보호한다.
· 상목은 수광량이 많아 좋은 성장을 한다.
· 조림비용이 일반 교림작업보다 적게 든다.
· 벌채로 잔존임목에 주는 피해가 적다.
· 각종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 상목으로부터 천연하종갱신이 가능하다.
· 심미적 가치가 높다.
· 소면적의 임지에서도 연료재 및 소량의 일반용재를 얻을 수 있다.

* 중림작업법의 단점
· 세밀한 조림기술을 쓰지 않으면 상목은 지하고가 낮고 분지성이 조잡해져서 수형이 불량해진다.
· 높은 작업 기술을 요하고 상목의 벌채량 조절이 어려우며 작업의 집약성이 요구된다.
· 상목의 피음(被蔭)으로 하목의 맹아발생과 성장이 억제된다.
· 지력이 좋아야 하고 광요구량이 커서 생산환경인자의 퇴화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 상목과 하목이 다른 수종일 경우 친화성이 문제가 된다.

13. 식물의 1차 에너지원인 빛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카로테노이드(carotenoid)는 식물의 광합성 시 보조색소 역할을 담당한다.
② 수평 방향으로 자라던 뿌리가 굴지성에 의해 밑으로 구부러지는 것은 사이토키닌(cytokinin) 때문이다.
③ 파이토크롬(phytochrome)은 식물체 내의 색소 중에서 광질에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는 색소이다.
④ 엽록체는 광반응을 담당하는 그라나(grana)와 암반응을 담당하는 스트로마(stroma)로 구분된다.
->
· 광색소와 관련해서 카로테노이드(carotenoid)의 기능은 이론수업시 필기하셨을 것입니다.
· Phytochrome 식물체내에 있는 색소 중에서 광질에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는 색소 중의 하나이다. Phytochrome은 암흑 속에서 기른 식물체 내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 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일부 파괴되거나 금지된다. (탑스팟 P. 116)
· 명반응은 햇빛이 있을 때 엽록체의 grana에서 진행된다. 태양에너지는 명반응을 거치면서 NADPH와 ATP에 저장된다. NADPH와 ATP는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조효소로서, 다른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암반응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과정이며, 엽록체 내에서 엽록소가 없는 stroma에서 햇빛이 없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암반응이라 한다. 그렇지만 NADPH와 ATP가 있을 경우에만 반응이 일어난다. (탑스팟 P. 117)
굴광성과 굴지성은 옥신 때문입니다.

14. 다음 수종별 열매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은행나무, 주목은 침엽수종의 열매분류 중 육과에 속한다.
② 주엽나무, 박태기나무 열매는 삭과에 속한다.
③ 수과, 견과, 시과, 영과는 활엽수종의 열매분류 중 건폐과에 속한다.
④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열매는 시과에 속한다.
-> 탑스팟 P. 208
· 삭과 : 2개 또는 여러 개의 심피가 유합해서 여러실로 된 자방을 만들고 각 심피에 종자가 붙어 있다. 포플러류, 버드나무류, 오동나무류, 개오동나무류, 동백나무, 무궁화 등
· 협과 : 1개의 심피로 된 자방이 성숙하면 2줄로 갈라진다. 자귀나무, 아카시아, 주엽나무, 박태기나무 등

15. 삽수의 발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직 내 C/N율이 높은 삽수는 발근이 잘 된다.
② 측지보다 주지에서 채취한 삽수가 발근이 잘 된다.
③ 영양지보다 생식지에서 채취한 삽수가 발근이 잘 된다.
④ 채취한 삽수는 눈을 모두 제거하여야 발근이 잘 된다.

-> 탑스팟 P. 277
삽수의 발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① C/N율이 높은 삽수는 발근이 잘 된다.
② 유성이 강한 어린 나무에서 채취한 삽수는 성숙목에서 얻은 삽수보다 발근이 잘 된다.
③ 주지보다 측지에서, 가지의 선단부보다는 기부에서 삽수를 채취하는 것이 삽목발근에 유리하다.
④ 꽃이 피는 생식지보다는 영양지에서, 수관 상부보다는 하부의 가지에서 삽수를 채취하는 것이 삽목발근에 유리하다.
⑤ 채취한 삽수는 눈을 제거하는 것보다 일부 눈이 달린 채로 삽목하는 것이 발근호르몬 합성 및 보급에 도움을 준다.

16. 파종상에서 기른 실생묘를 산지식재에 알맞은 묘목으로 만들기 위한 상체작업에서 상체연도가 가장 긴 수종은? 1
① 가문비나무
② 낙엽송
③ 소나무
④ 삼나무
-> 탑스팟 P. 273
① 1년생으로 상체하는 수종 : 소나무, 해송, 삼나무, 편백, 낙엽송, 참나무류
② 2년생으로 상체하는 수종 : 독일가문비, 잣나무
③ 3년생으로 상체하는 수종 : 전나무

17. 제벌(어린나무 가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일반적으로 제벌은 간벌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② 제벌은 조림목 하나하나의 성장증가에 중점을 두는 작업법이다.
③ 제벌은 제거 대상목의 맹아력이 약한 여름철에 실행하는 것이 좋다.
④ 제벌은 간벌과 같이 중간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
· 어린나무가꾸기는 6~9월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탑스팟 P. 320)
제벌시기는 나무의 고사상태를 알고 맹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 후 조림목과 경쟁하는 목적 이외의 수종과 조림목 중에서도 형질불량목이나 폭목(暴木) 등을 제거하고 극심한 경쟁상태에 있는 부분은 공간을 만들어 조림목이 정상적으로 생장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탑스팟 P. 319)
제벌은 조림목 하나하나의 성장증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임상을 정비해서 목적하는 수종의 건정한 자람을 도모하고 임분 전체의 형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간벌이 시작될 때까지 2~3회의 제벌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탑스팟 P. 320)

· 제벌(잡목솎아베기, 어린나무가꾸기)시 벌채되는 것은 불량목은 거의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8. 산림군집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콩과식물의 Frankia와 오리나무류의 Rhizoctonia에 의한 질소고정은 대표적인 상리공생 유형이다.
② 산림군집의 수종 또는 식물의 종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본구법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다.
③ 산림군집의 종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출현하는 식물종의 수고와 흉고직경이다.
④ 우리나라의 산림군집은 교목, 관목, 덩굴식물, 초본식물의 4가지 생육형으로 구분한다.
->
① 콩과식물은 Rhizobium, 오리나무류는 Frankia와 공생. (탑스팟 P. 130)
③ 산림군집의 종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출현하는 식물종마다의 개체수입니다.
④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활엽수림의 산림군집은 교목, 관목, 덩굴식물, 착생식물, 초본식물, 엽상식물의 6가지의 생육형으로 구분됩니다.

19. 근류식물(根瘤植物)은 아니나 비교적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엽량이 많으며, 질소함량이 많아 토양개량기능이 높은 수종이 아닌 것은? 4
① 포플러
② 플라타너스
③ 붉나무
④ 소귀나무
-> 탑스팟 P. 340
· 콩과식물 외에 오리나무류, 보리수나무류, 소귀나무, 갈매나무 등도 뿌리혹을 만들어 그 속에 프란키아(Frankia)라는 질소고정균이 공생하여 콩과식물과 같은 능력을 보여 비료목으로 취급된다. 비료목은 대게 양수이지만 소귀나무와 같이 약간 음수성을 띠는 것도 있다.
· 붉나무, 딱총나무, 누리장나무, 식나무 등과 같이 콩과식물은 아니지만 척박한 땅에서 잘 견디면서 자라고 질소성분을 잎에 많이 포함하여 땅힘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비료목으로 취급할 수 있다.

20. 산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사면방향이 남쪽이나 남서면에 가까울수록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적다.
② 연소속도가 빨라 약제를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설치한 방화선을 연소저지선이라 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산정된 산불위험경보를 나타내는 산불위험 지수는 61~80이다.
④ 지형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산불의 연소진행방향은 대부분 단순사면형이다.
->
① 사면방향이 남쪽이나 남서면에 가까울수록 산불발생의 위험이 크고, 구릉지나 평지의 산림은 계곡부의 산림보다 건조하기 쉽기 때문에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② 연소속도가 빨라 단시간내에 방화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소진행이 예상되는 방향에 미리 헬기를 이용하여 소화약제를 산포하여 약제방화선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를 응급방화선이라고 합니다.
③ 산불위험경보를 나타내는 산불위험지수는 81~100입니다.